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 시작과 변화

신혜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육실장, 지리학과 교수)

탈북 청소년의 교육 문제

탈북 청소년은 어떤 교육을 받을까? 자녀의 교육은 이주의 가장 큰 동기이면서 걱정거리로 꼽힌다. 지정학적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분류되는 탈북민은 다를까 싶지만, 많은 면담 말미에 나오는 궁극적인 희망과 걱정은 2세에 관해서였다.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 정착하는 과정은 단순한 적응을 넘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특히 탈북 청소년은 그저 단순히 다른 학교 체제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상당수가 북한을 떠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학교에 다닐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주민 자녀 학교는 이주민 장소 중 핵심적이다. 이주민, 난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사회에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는 전략을 펴는데, 이주민 집중지역에 있는 거주지, 종교 공간, 사업체, 여가 공간이 대표적이다. 그중 자녀교육과 관련된 곳은 이주민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공간이다. 도착지 사회의 입장에서 이주민 자녀의 교육과 성장은 미래의 통합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이주민 자녀 학교는 희망하는 미래의 다양한 모습이 충돌하는 장이 되기 쉽다. 최대한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주민 자녀의 학교를 따로 마련하는 것에 불편해하는 반면, 이주민의 초국적 정체성을 존중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학교도 있다.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의 약 5%를 차지하는 탈북 청소년은 일반 학교,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시설 중 선택할 수 있다. 탈북 청소년의 대부분, 약 86%가 일반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 부모들은 걱정이 많았다. 차별과 따돌림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탈북민일 것이 눈에 띄까봐 아이가 엄마가 학교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슬퍼한다.

10~20%는 현실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학습 공백이 길고 한국어가 서툰 경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워한다. 이처럼 일반 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탈북민 대안학교'이다.

탈북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사이의 탈북민이라 이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30대가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 부르지만, 성인의 나이에 학교 교육을 처음 받는 경우도 많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운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안학교에서는 학업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지원도 함께 제공하며,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하지만 이런 학교들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었다. 대안학교들은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 단체와 개인의 노력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이 글은 다음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주는, 신혜란. 2024. 이주민 장소만들기에 대한 관계적 접근- 수도권 탈북민 대안학교 설립과 정착을 중심으로 - 『대한지리학회지』 59 (5): 638-655.

탈북민 대안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는 전국에 총 11곳이 있고 그중 9곳은 기독교계 학교이다. 탈북민 대안학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탈북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했고, 특히 청소년을 위한 교육 제도는 거의 없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종교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개신교 선교 단체들은 북한 선교라는 신념 아래 이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운영했고, 2004년에는 원불교 재단이 교육부 요청을 받아 학교법인을 통해 대안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서울에 353명, 경기도에 585명, 인천에 171명이 있어 탈북 청소년의 절반이 넘는 62.8%가 수도권에 모여 있다. 그래서 대안학교 8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에 있는 학교는 여명학교, 우리들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남북사랑학교 5곳이다. 하늘꿈중고등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한꿈학교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각 학교에는 보통 30~4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는데 서울교육청이 유일하게 인가한 중고등학교인 여명학교 학생은 80명이 넘는다.

이러한 학교들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었다. 첫째는 공교육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를 보완하고, 이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실제로 많은 탈북 학생들은 한국어 소통이 서툴다. 게다가 문화 차이 때문에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우니 학습 공백이 크다. 한국어를 알아도 한 학생은 수학 시간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를 묻는 질문에 주사위가 뭔지 몰라 대답하지 못했다. 주사위는 북한말로 ‘수자팽이’이다. 북한에서 온 엄마와 중국 출신인 아버지는 대개 생계를 꾸리는 일로 바쁘고 학교 교육 신경을 쓸 여유가 없고 한국어 교육에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교회들은 언어 교육은 물론, 정서적 지원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교육까지 함께 제공했다.

둘째, 교회들은 이 청소년들을 단순히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통일 세대, 더 나아가 선교사로 성장시키겠다는 종교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아침 묵상, 예배, 성경 공부, 수련회, 해외 선교 단체와의 워크숍 등을 통해 학생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랐다. 매일 아침 QT(Quiet Time, 묵상 시간)를 가지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삶을 가르치고 탈북 청소년들을 장차 통일한국을 이끌 인재이자 북한 선교의 주체로 키우려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탈북민 대안학교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큰 과제였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 건물 임대료 문제, 지역사회와의 협력, 다른 대안학교들과의 학생 모집 경쟁까지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시설이 같이 필요한데 그것도 공간을 구하기 힘들게 한 요인이었다.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도시에서는 장애인, 성소수자,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공간을 만들려면 사회적 설득도 필요하고, 기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다. 일부 주민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으며, 학교가 들어오면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 대안학교는 간판에 탈북, 북한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결국 땅과 건물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종교기관, 지역단체, 학교 선생님들, 정부 부처들이 앞장섰고 탈북학생과 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관여했다. 이러한 반대 속에서 대안학교들은 어렵사리 공간을 구하고 점차 그 필요성을 인정받으며 운영을 이어갔다.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몇 대안학교를 방문해 보면 외관의 첫인상은 식당을 겸비한 보습학원 같다는 것이었다. 2층이나 지하에 있는 보습학원처럼 복도 양편에 작은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악기실 등이 있었다. 교회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의 일부를 학교로 개조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탈북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에 밀집된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기숙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의 학생들을 받아들인다. 이 과정에서 교회 신자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급식을 제공하거나 상담을 맡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활 지도와 심리적 안정도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탈북민 대안학교 교사들과 심층 면담을 해보면 이 과정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탈북 학생들, 특히 북한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온 학생들은 신기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하고 의리가 있고 당연한 듯이 어른을 공경하고 선생님 말씀은 정말 잘 듣는다고 했다. “척박한 북한 땅에서 났는데 그 열매는 정말 풍성하다”고 표현했다.

상황의 변화와 탈북민 대안학교의 위기

한편 탈북민 교육을 둘러싼 내부 상황도 많이 바뀌어 시간이 지나면서 탈북민 대안학교들은 새로운 위기들을 하나씩 마주하게 되었다. 조직과 기관은 세우고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줄이고 없애기도 힘들어서 외부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학생 수 감소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강하게 봉쇄하고 남북관계도 얼어붙으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청소년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많은 대안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일부 학교는 운영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제3국 출신의 학생 수가 많아진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북한이 아닌 제3국, 주로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학생의 수가 북한 출생 학생 수를 넘어섰고, 2023년 기준으로는 전체 탈북학생의 약 70%가 제3국 출생이다. 이러한 변화는 탈북 여성들의 이주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여성들이 북한을 떠나 중국에 머무는 동안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들이 중국에서 자라다 청소년기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중국어에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한국어가 서툴고, 그로 인해 일반 학교에서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탈북민 대안학교들은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이중언어(중국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교사를 채용하는 등 제3국 출생 학생들이 공교육 체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언어뿐 아니라 문화의 장벽도 있어서 그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사들이 필요했다.

두 번째 위기는 정부 정책의 변화다. 과거에는 정부가 탈북 청소년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학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가 탈북민 지원 정책을 확대했다. 2009년, 교육부는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 일반 학교에서도 탈북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통일부 역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 심리적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이처럼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도 탈북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대안학교가 맡던 기능의 일부가 일반 학교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대안학교의 위치도 달라지게 되었다.

세 번째 위기는 대안학교 간의 경쟁 심화다. 초기에는 대안학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서로 경쟁보다는 협력이 가능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 탈북민을 지원하는 선교 단체나 민간 기관이 늘어나면서 대안학교 수도 함께 증가했다. 공교육 안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늘었고, 기존의 대안학교 교사들이 직접 새 학교를 세우는 경우도 생기면서 대안학교 숫자도 늘어났다. 그러나 정작 탈북 청소년 수는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들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하나원(탈북민 정착교육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이처럼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학교 수는 늘어나면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졌고, 결국 몇몇 학교는 재정난이나 학생 부족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탈북민 대안학교의 생존 전략: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처럼 여러 위기 속에서 탈북민 대안학교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인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학교로 인정받게 되어 학력도 보장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운영이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학생들에게도 보다 체계적이고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대안학교들은 인가를 받은 뒤, 교과과정부터 생활지도까지 훨씬 정비된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만, 인가를 받는다는 건 정부의 규제도 함께 따라야 한다는 뜻이어서, 학교의 자율성은 줄어드는 아쉬움도 있다. 운영 철학이나 방식에서 자유롭고 싶었던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하나의 전략은 ‘위탁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일부 대안학교들은 교육청과 손잡고 탈북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학생들이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하면서도, 출결이나 성적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결국 일반 학교의 졸업장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학생 입장에서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 큰 장점이고, 학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학생 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가끔 일반 학교의 담임교사가 제도화된 위탁교육에 협조하지 않고 그럴 권한이 없는데도 싫어하고 방해해서 그 위탁지정을 하는 과정이 1년 넘게 끌거나 결국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몇몇 학교들은 학생 모집의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탈북 청소년뿐만 아니라 조선족 청소년이나 고려인 청소년 등 다양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도 함께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학교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차적으로 탈북민 대안학교가 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품는 열린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는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탈북민 관련 기관들도 줄어드는 탈북민의 수로 인해 공통적으로 만들고 있다. 가끔 한국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탈북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궁금해서 왜 여길 다니고 싶어 하냐고 물으니 “편안해서”라는 답이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략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불신이 학교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몇몇 대안학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 시설을 개방하거나,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차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주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지역사회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셈이다.

탈북민 대안학교의 미래

지금까지 탈북민 대안학교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흔히 조기유학, 어학연수를 보내거나 가족이 이주를 하는 경우 부모에 비해 자녀들은 언어와 문화를 놀랄 정도로 빠르게 흡수한다고 한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안심하는 동안, 실은 빠르게 적응하는 만큼 그 시기의 혼란, 상처가 평생 가는 경우가 많다. 언어와 생김새 면에서 이점이 있더라도 탈북민의 특성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은 그 특유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대안학교는 공교육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했던 탈북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정착을 도왔으며, 교육의 공백을 메워주는 든든한 울타리였다.

앞으로는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 수가 줄고, 정부 정책도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학교들은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기보다는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공교육과의 협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실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아예 다른 학교가 아니라 중간 지대인 일반학교를 다니는 탈북 청소년이 올 수 있는 탈북민 방과후 학교나 공동생활시설과 같이 거주/교육 공간, 성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성인교육이 강화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의 고민, 관심과 지원 속에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필자 소개

신혜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육실장, 지리학과 교수)



신혜란 교수는 정치지리, 지정학, 이동의 정치를 연구한다. 정치지리 분야에서는 특히 기억공간, 도시재생, 신도시, 환경담론 등에서 다양한 참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권력관계, 협상, 갈등, 협력, 파트너십, 적응기호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지정학 연구는 아시아 지정학의 특성, 이동경로를 포괄하는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이동의 정치는 이민자, 이주민 밀집지역(조선족, 탈북자, 스리랑카, 베트남)을 살펴보고 세계화로 심화된 이동의 정치가 이민자의 삶과 두 사회의 연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한다. 2005년에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이민자들의 젠더(gender), 일상문화, 빈곤, 역량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런던대(UCL: University College London)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